



인공건조 알팔파 펠릿 공급안내

— 지 도 부 —

본회는 금년도 알선사업의 일환으로 알팔파를 수입, 회원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1차로 3월말을 전후하여 알팔파 큐브를 1,014톤 공급하였고 6월말을 전후하여 제2차분 자연건조 펠릿 804톤을 공급한데 이어 9월중 인공건조 펠릿을 공급키로 하고 추진중에 있다.

1차분 알팔파 큐브는 캐나다산 인공건조 큐브(미니큐브) 300톤과 미국산 자연건조 큐브 714톤을 공급하였었는데 대체로 미니큐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었다. 그리고 농가에서 사료자가배합(TMR)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배합사료 원료용 알팔파 펠릿을 공급받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내년도부터 정부의 수입 자유화 정책에 대비하여 펠릿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농가의 판단기준을 마련코자 펠릿을 수입키로 하되 자연건조 큐브를 제2차분으로 수입 공급한데 이어 제3차분은 인공건조 펠릿으로 공급한다. 특히 제2차분 공급시 수입절차를 거쳐 농

가에 수송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검토해 볼때 최대한 빨리 수입도착 되도록 하여야만 1차분에 이어 농가에서 연속적인 알팔파 급여가 가능한데 입찰 결과 펠릿만이 가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704톤 수입에 신청수량은 2천톤을 훨씬 웃돌았고 부족 물량으로 농가 혹은 낙우회 공급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뒤따랐다. 문서 혹은 전화 신청이 계속되는 과정에 물량부족을 이유로 부득이 신청량보다 적은 양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는 협회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꼭 힘들었고 직원들이 변명이 필요했었다. 동분서주하던 끝에 배합사료 원료용 수입분을 공식절차를 거쳐 빌려다가 공급함으로써 일부 소량이나마 농가신청을 외면하지 않고 공급하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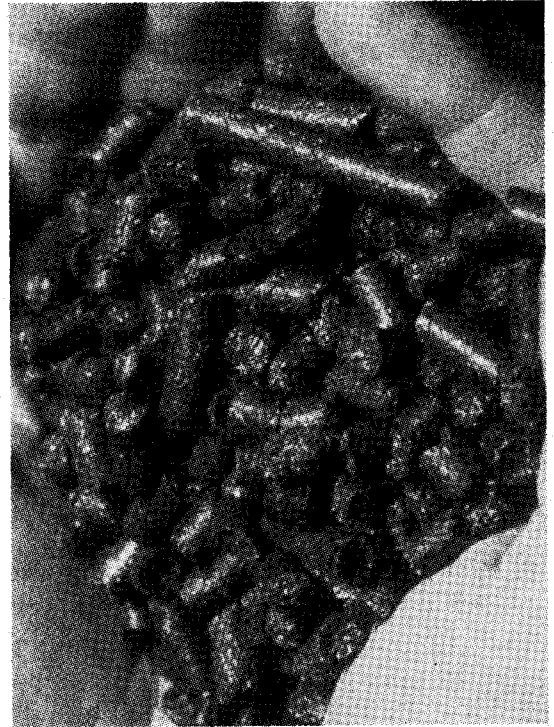
따라서 3차분만 신청수량을 가급적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조사된 수요량을 토대로 입찰을 실시하였고 캐나다산 2천8백여톤이 선정되어 9월초 부산항에

입항하게 되고 9월중으로 농가에 도착된다.

■ 제3차분 인공건조 알팔파 펠렛의 특징 ■

2차분 자연건조 펠렛 공급에 이어 3차분을 인공건조 펠렛으로 결정하는데는 많은 검토가 뒤따랐다. 3월중 본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한카 알팔파세미나에서는 알팔파의 제품별 특징과 우리나라 젖소의 능력정도, 조사료 사정, 경제성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할 때 큐브 혹은 인공건조 펠렛이 권장할 만하다는 학자들의 보고가 토대가 되었고, 특히 펠렛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가추세에 비춰볼때 우수한 품질의 펠렛으로 경영개선에 기여코자 했다. 따라서 캐나다산 최상등급 제품으로써 인공건조 펠렛을 선택하게 되었고 시기적으로 6월중에 수확한 '89년도 1번초 예취제품으로 영양성분 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선택하였다. 성분함량을 보면 조단백질 18.5% 이상, 조섬유 28%이하, 가소화 양분총량 60%이상, 카로틴 165mg/kg 등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알팔파 중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할때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우기 농가에서 이용되는 펠렛이 자연건조 제품인데 비해 다소 가격면에서 비싸더라도 인공건조 펠렛을 처음 수입, 소개함으로써 성분기준시 실질가격은 낮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젖소에 급여하는 사료중에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여사료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25~45%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사료의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곧 젖소 체내에서 단백질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 착안된 것이 바로 우회 단백질이다. 쉽게 말하면 섭취된 사료단백질이 제1 위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제4 위로 넘어가 소화효소에 의한 소화과정을 거쳐 소



제3차분 인공건조 알팔파 펠렛의 특징

- 금번 제3차분 알팔파 인공건조 펠렛은 캐나다산 최상등급 제품임.
- '89년도 1번초 예취제품으로써 영양성분이 가장 우수함.
 - 조 단 백 질 18.5% 이상
 - 조 섬 유 28% 이하
 - 가 소 화 양 분 총 량 60% 이상
 - 카 로 틴 165mg/kg
- 영양성분 함량 기준시 국내에 수입되는 알팔파 중 가장 저렴한 제품임.
- 인공건조 알팔파 펠렛으로는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제품임.

장을 지나는 동안에 흡수되는 단백질로써 단백질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사료일지라도 우회단백질 함량이 낮을 경우 제1 위에서의 분해율이 높아 체내에 이용되는 단백질의 정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 대부분은 오줌으로 배설되는 등 단백질의 손실이 초래된다. 우회단백질은 생산력이 높은 젖소와 성장이 빠른 어린 소에게 중요하다.

그것은 반추위 내에서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젖소의 반추위 내에서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양은 체유지 및 우유 1일 생산 12~15kg 정도 생산에 필요한 양 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우유 생산을 위해서는 반추위 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 공급원이 필요하게 된다.

제3차분 인공건조 알팔파 펠렛은 우회단백질 함량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젖소의 체내에서 단백질 이용율을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제품이다.

알팔파의 제품별 성분비교

구 분	인공건조펠렛 (제3차분)	자연건조펠렛	헤이큐브
조단백질	18.5%이상	15~17%이상	15~17%이상
조 섬유 유	28%이하	28%이하	32%이하
가소화양분총량	60% 이상	50% 이상	50% 이상
수 분	10% 이하	10% 이하	12% 이하
β-카로틴	165mg/kg	50mg/kg 정도	50mg/kg 정도
조 회 분	12% 이하	12% 이하	12% 이하
칼 슴	1.4% 정도	1.4% 정도	1.4%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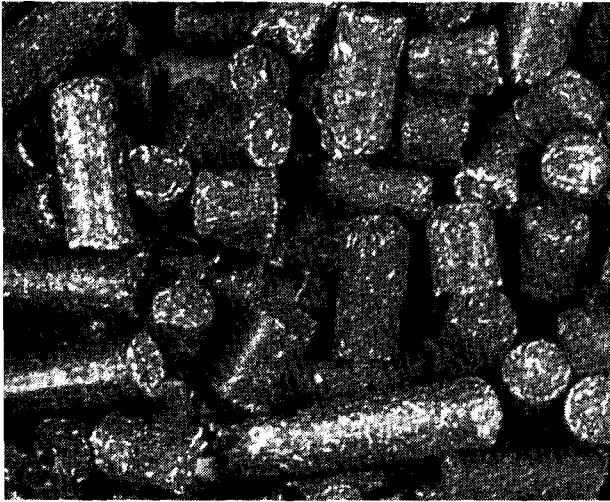


인공건조 펠렛의 이용방법

인공건조 펠렛은 고능력우에 있어 조약한 조사료 급여 농가에 있어 보충조사료로써 이용하거나 곡류 사료의 단백질 보충사료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농후사료의 대체 및 조사료 중의 영양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는 1일 4.5kg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공건조 알팔파를 농후사료 대체용으로 사용하면 우유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지율이 증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조사료의 부분적인 대체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일 3kg까지 급여할 수 있다.

농후사료로서 혹은 섬유소의 부분적인 공급원으로 사용될 경우 알팔파를 사용할 경우 알팔파를 농후사료와 고루 섞거나 사료의 맨 위에 뿌려서 먹일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급여할 경우 알팔파로 인한 반추위의 완충효과를 얻을수 있다. 다른 사료와 마찬가지로 인공건조 알팔파 펠렛은 소화기관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3주 간에 걸쳐 서서히 그 양을 증가시



키며 사용해야 한다.

송아지의 경우 전체 사료의 20%까지, 건유우의 경우 두당 2.5kg 정도까지 급여할 수 있다.

협회의 알팔파 공급방법

회원농가에서 가급적 차량단위(5톤)로 신청을 받아 협회 차량으로 수송한다. 물론 협회 차량으로 공급할 때의 문제이고, 농가에서 직접 차량으로 부두에서 인수받을 때는 신청수량에 구애받지 않고 있다. 차량단위 신청은 수송의 원활과 수송비의 절감을 기하고 협회 업무에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으나 영세농가에서 소량단위 신청시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주위에서 차량단위가 되도록 공동물량을 만들어 차량단위가 되도록 하면 다소의 불평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알팔파 제품은 펠렛과 큐브가 주종인데 수입되는 경우 큐브는 반드시 콘테이너로 선적되어 수송비가 가산되어 현재 농가구입 가격이 비싸다. 반면에 외국의 사료제조 형태가 대부분 펠렛으

로 일반화 되어 있어 펠렛은 수송이 원활하고 특히 수입시 산물(Bulk) 상태로 선적되므로 선임이 싸고 작업단계가 단축되어 농가구입 가격이 싼 요인이 된다.

또한 국내에서 포장할 경우 포장비가 kg당 약 20원 가량인데 비해 본국에서 포장된 상태로 수입될 경우 약 40원 정도가 되어 부득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포장상태로 수입해다 부두에서 포장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50kg단위로 포장하고 저울질하여 공급하고 있다.

물론 50kg 단위 포장에 있어 정량계근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 국내에 알팔파만을 위해 기계포장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기계포장시 포장비 부담 등으로 부두 노무자들이 손수 포장하고 저울질하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다. 앞으로 대량 구입시 혹은 장기적인 추세에 대비해 포장의 기계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50kg 포장의 중량 부정확성에 대비해 차량단위로 컴퓨터 계근을 실시하고, 농가공급 후 대금 정산은 컴퓨터 계근량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대금납입은 협회에서 산정한 예정단가를 신청과 동시에 50% 납입토록 하고, 잔금은 농가 수송전까지 납입토록 하고 있다. 협회 알선사업에 가장 어려운 과제가 대금 납부로 되어 있다. 특히 현금 선납의 부담은 신청농가들의 꺼리는 요인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알팔파는 관세 품목이므로 수입시 현금 결제 조건(at sight)이고 따라서 협회에서는 입찰후 즉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고 물품이 부두에 도착되기도 전에 은행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신청농가들의 선납금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협회의 비축된 자금으로 선납금에 의존하지 않고 대금지불만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어렵다. 특히 협동조합 납유농가의 경우 제반 구입비가 유대에서 공제되는 관행에서 협

회의 알팔파만은 현금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구입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알선사업이 지속된다면 유대공제 등의 방법으로 농가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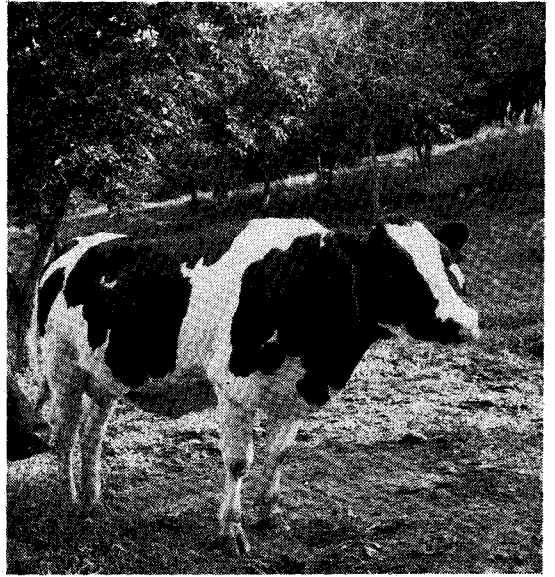
낙우회 등에서 대량 물량을 농가로부터 신청받아 협회에서 공급받은 신청처에서는 전화비, 문서비 등 알선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제1차 알팔파 공급후 취급 낙우회 등에 협회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였었다. 앞으로도 지원비는 소액의 금액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 완료후에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금은 통상 예정단가보다 낮게 계산되어지고 있어 예정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신청처별로 통보하고 환불해주고 있다. 1차분의 경우 예정단가 240원에 비해 정산된 확정단가는 226원이었다. 2차분 자연건조 펠렛의 경우 예정단가 180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분 정산은 조속히 실시하고 차액을 환불할 예정이다.

■ 협회의 알팔파 알선사업의 주된 목적 ■

알팔파는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재배되고 있으나 토질, 초지여건 등으로 일부 농가에 그치고 있다.

익히 아는바와 같이 알팔파는 목초의 여왕이라 불릴만큼 우수한 영양성분을 가진 조사료원이고 특히 국토의 여건 및 부존자원 활용 측면에서 최대한 국내에서 재배 이용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알팔파 수입시 심한 찬반양론이 전개되었던 바와 같이 풀까지 수입해다 축산을 영위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면 반드시 수입 알팔파는 고능력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품별 특성과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젖소의 생산성을 최



대한 높이고 경제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보다 양질의 알팔파를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생산비 인하에 기여하고 1990년부터 실시되는 자유화 정책에 대비하여 품질, 가격 등에 있어 농가의 판단기준을 마련코자 알팔파 알선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입시 과중한 세 부담(큐브 34.5%, 펠렛 29%)을 완화시켜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절감시키고 아울러 알팔파 이용농가에 대한 편의도모와 회원간의 유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팔파에 대한 올바른 사양지도와 기술향상을 통해 선진낙농에 근접하는 기술보급에 숭선키 위해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캐나다 정부의 후원을 얻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지를 순회하며 알팔파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9월중으로 순천, 부산, 온양 서울 등 전국 순회 세미나도 추진중에 있어 낙농가의 실질적인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